

결국은 '밖'이 아니라 '안'의 문제다

출판시장 개방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보며 갖는 몇몇 생각

오관기

DRT 인터넷서널 저작권담당

출판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 쪽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써달라는 기자분의 어려운 주문을 받아놓고 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사실 '객관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나 나름의 솔직한 의문이었다. 사실 출판시장의 개방이라는 문제를 그저 '개방은 외국문화에 종속되는 것이다'라는 대단히 과격한, 그러나 아주 설득력 있어 보이는 틀로 재어버리는 일은 특히나 우리처럼 외세가 가져다준 온갖 어려움과 억압을 경험해온 민족의 일원에게는 정서적으로 친근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가 출판시장의 개방이라는 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개방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쳐두고 '개방'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파장의 의미를 좀더 유심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툭 터놓고 말해서 외국의 거대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한국의 출판시장 개방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과 오랜 동안 취약하고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제대로 내실있는 성장을 꾀하지 못해온 한국의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입지가 현저히 위협받으리라는 위기의식에서 격렬하게 개방을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푸념은 옆으로 조금 쳐두어보자는 말이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거대 외국 출판사본과의 싸움이든, 그간 우리 스스로를 저버려왔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안일했던 낡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든 말이다. 87년 국제 저작권 협약 가입이 실은 이런 진행과정의 전조였음을 이미 우리 출판계는 감지하고 있지 않았던가?

출판시장 개방이 물고을 몇가지 가능성

시기와 구체적 절차가 어떻든간에 기왕에 유통을 포함한 출판시장 전반의 개방이 일정에 올라있는 이상 우선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금을 보전하고 가장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출판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싫든 좋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힘센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출판사를 포함한 우리의 출판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개방이 초래하리라 생각되는 결과들을 정확히 직시하여 그에 대비하는 것이 실은 모든 갑론을박에 앞서는 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련 안에서 특히 해외

저작물의 번역권 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저작권 에이전시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된 조건들이 예견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출판시장 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고 있는 바이겠지만 개방은 크게 보아 1) 외국 출판사가 국내에 지사를 세우거나 기존의 한국 출판사와 합작하여 한국어로 된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가능성, 2) 원서 그대로를 국내나 인건비가 싼 제 3국에서 인쇄해서 국내 지사를 통해 수입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 3) 도서 유통에 외국의 거대 자본이 뛰어들게 될 가능성 등의 세가지 경로를 예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출간하는 일을 외국의 원서저작권자와 국내 출판사의 중간에서 서서 정확한 계약의 형식으로 중개해 주는 일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저작권 에이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첫번째의 가능성이다.

이 첫번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보자면,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출판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의 자본과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미 및 일본의 출판사들이 직접 자기들의 지사를 국내에 두거나 국내 출판사와 손을 잡고 기존에 있어온 것과 같은 저작권 계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들의 자본과 광고력을 통해서 원저작의 한국어 판을 국내에 내어놓고 판매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내의 저작권 에이전시 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영국을 제외한 유럽 지역의 출판사와 일본 출판사들의 경우에는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하더라도(이 다수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은 그들이 우리 시장에 그런 직접출판을 해냈을때 과연 자본의 지속적이고 상승적인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나온 것이다) 몇몇의 대형 출판사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끔씩 접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고려할때 배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항들(그 자본의 수익성이나 한국상륙을 고려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성격 등등)을 고려해 볼때 적어도 출판시장이 개방된 이후에도 우리들이 걱정하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존의 독서 성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낯선 문화'의 전면적인 유입이 그로

출판시장 개방에 대응한 최종적인,

그리고 최선의 대비책은 독자들을

용기있게 앞서 이끌고 가야 할 사명을

방기하고 독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문화적 필요를 외면해온 채 그저

게으른 우물안 개구리로 안주해왔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싸움에 우리

출판인들이 하루빨리 '이를 악물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해 초래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 출판사들의 한국 상륙은 쓰라렸던 두 나라 사이의 과거와 안심할 수 없는 일본의 속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에 나아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오지 않았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의 파장을 슬기롭게 이겨내려면

미국이나 영국쪽 출판사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한국어판 직접 출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 까닭은 영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 영어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또 한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로 출판할 권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권리의 관리·소유자 또한 분리되어 있다. 요컨대 영미쪽의 출판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출판해 내어놓는 책들의 영어판 출판권만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언어로 출판할 권리는 저자의 에이전트(대리인)가 관리·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출판사가 직접 한국에 한국어로 출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복잡하고, 또 출판사들이 한국어판권을 일일이 챙겨서 우리 나라에 상륙할 만큼 우리의 도서시장이 그들에게 매력있는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미 완전히 개방된 출판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도리어 우리 출판사들이 좀더 '출판 그 자체'와 독자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출판행위를 해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국내의 에이전시 업계 또한 이 첫번째 한국어판 직접출판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업무상의 별다른

지장을 받지는 않으리라 예견한다.

두번째와 세번째의 가능성은 사실 국내 에이전시 업계의 업무에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이다. 하지만 개방과 관련한 외국 출판사본의 관심은 두번째와 세번째의 가능성에 첫번째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두번째의 원서 그대로를 그대로 출판할 가능성을 보면, 한국어로 번역될 필요가 없고 원어 그대로 판매해도 국내에서 상당한 수요를 발견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영어 등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교재 및 그와 함께 판매되는 음반 저작물, 번역보다 원서를 요구하는 이공학 교재 및 각종 전문서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간 전부 수입도서의 형식으로 국내에 소개되던 것들이 국내나 인건비가 싼 동남아, 남미 등지에서 인쇄되어 보다 기존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되리라 전망된다.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번째 출판관련 유통시장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리라는 것은, 외국의 거대 출판사본이 출판관련 유통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연합되어'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거대자본 그 자체라는 점과 국내의 출판관련 유통이 그 외형적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구조와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본다. 출판이 아니라도 엄청난 초기투자 와 앞선 경영방식으로 우리의 기본상품 유통체계를 위협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외국 자본들을 보더라도 우리 출판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은 초미의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가져올 파장의 높고 낮음은 우리 출판인의 손에 나아가 우리 문화와 우리 긍지를 지키려는 독자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방법은 개방의 일정을 조정하고 늦추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리고 최선의 대비책은 독자들을 용기있게 앞서 이끌고 가장 앞서가야 할 사명을 방기하고 독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문화적 필요를 외면해온 채 그저 게으른 '우물안 개구리'로 안주해왔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싸움에 우리 출판인들이 하루빨리 '이를 악물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